

# 육근 청정해야 실상경계 본다

## 법화경 ⑫

《법화경》에서는 돌봄 깨달아 성불(頓悟成佛)하는 여래의 선사상을 설하고 있다. 돈오성불이란 중생으로 하여금 보살도를 이루어 곧 바로 불도에 들어가는 일불승으로, 일념으로 실상의 이치를 깨달아 일체의 번뇌와 습기를 끊고 일체를 보고 알아 통달하지 않음이 없다는 것이다. 달리 일념신해(一念信解: 일념으로 믿음과 이해) 일념수희(一念隨喜: 일념으로 따라 기뻐함)로도 표현한다. 그러나 《법화경》이 다른 대승경전보다 강조하는 것은 불도를 향해 나아가는 보살을 가르치는 법(善巧法)이라는 것 뿐만 아니라, 부처님께서 항상 호명하시는 경(佛所護念)이라는 데 있다. 부처님께서 호명(護念, Parigraha)하고 섭수(攝受)하는 경이란 '서품'에서는 '무량의 뜻으로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라고 설하고, '인력행보'에서는 '제천이 주아로 항상 법을 위하여 위호(衛護)한다'고 하며, '다라니품'에서는 '두 보살(마하보살, 용시보살) 두 하늘(비사문천왕, 지극천왕) 십나한녀도 다섯가지 신주(神呪)에 의하여 《법화경》을 수지하는 오종법사(五種法師: 법화경을 수지 독송 해설 서사 하는 이)를 응호(擁護)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와같이 《법화경》을 부처님께서 호명하시는 것은 곧 돈오의 일불승을 설하는 비밀법을 설하기



이기운  
(동국대 강사)

때문이라 한다. 이러한 일불승 여래선정의 경계는 경의 서두로부터 보살대중과 성문들과의 대화를 통하여 제시하고 있다. '서품'에서 부처는 무량의처삼매(無量義處三昧: 법화삼매의 일종으로 실상을 아는 삼매)에 들어 백호에서 동방



## 무량의 뜻으로 보살을 가르치는 법 오종법사 수행설해 염불의 길 안내

으로 만팔천토를 비추어 불국토를 드러내는 것으로부터 무언의 설법을 시작한다. 그러나 당시의 대중들은 문수보살을 제외하고 이 광명이 뜻하는 바 실상의 법을 알지 못하여 의혹에 쌓이게 된다. 마한가지로 '방편품'에 이르러 삼매속에서 일어나신 부처님께서 온갖 선정 삼매등 미증유의 법을 성취하셨다고 밝히고 오직 부처님이라야만 제법실상을 깨달아 알게 된다고 선언하면서, 이른바 제법은 "이와 같은 상(相),

이와 같은 성(性), 이와같은 체(體), 이와같은 역(力), 이와 같은 작(作), 이와 같은 인(因), 이와 같은 연(緣), 이와 같은 과(果), 이와 같은 보(報), 이와 같은 본말구경등(本末究竟等)"라고 실상의 경계를 밝히자, 지혜제일 성문제자 사리불도 부처님의 본 뜻을 알아낼 수가 없었다. 게다가 이러한 실상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이제까지 여래는 삼승 방편 일승 진실의 법을 폄다고 선언하자, 오천의 대중이 퇴장하는 일

이 벌어진다. 그러면 이러한 여래의 선정으로 도달하는 돈오의 실상은 어떻게 체득되는가? 이를 위하여 부처는 무수한 인연과 비유가 필요한 것이었음을 밝히고, 이어 육근청정(六根清淨)으로 얻어지는 수행법을 설하고 있다. 육근이 청정해지는 과정은 경을 통달해 지니고(受持), 읽고(讀), 외우고(誦), 해설(解說)하고, 베껴쓰으로써(書寫) 끊임 없이 《법화경》의 오종법사를 수행하면 우리의 감각기관인 육근(六根: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의근)에 전환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전에 우리의 육근은 자신의 업(業)에 의해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접촉하고 의식하였으나, 이제 법화의 공력으로 인하여 이것은 모두 허망한 감각됨을 깨닫고 합치하면 자연 오욕락이 허망한 것이 되어 버린다. 이를 《법화론(法華論)》에서는 "보통 사람들도 《법화경》의 힘으로 인해 뛰어난 근기의 활동력을 얻어 비록 초지(初地: 견성)에 들어가지 못했다 하더라도 부모가 낳아 주신 육안(肉眼: 육근)으로 삼천대천세계의 안팎을 꿰뚫어 보게 된다"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육근을 장엄하면 이제 범세만 말던 비근(鼻根)에서 안근의 색을 볼수 있고, 소리를 듣고, 촉감을 느끼며, 냄새를 아는 등의 상호 작용이 이루어진다. 곧 마음으로 깨달아 아는 것이다. 그러므로 육안(肉眼)에 천안(天眼), 혜안(慧眼), 법안(法眼), 불안(佛眼)의 작용이 갖춰지므로써 신通力이 생기고 불가사의한 경지를 체험하게 된다. 나머지 오근도 마찬가지로이다. 이상이 육근청정을 얻는 과정이고 법화삼매에 드는 과정이다. 다음에는 법화삼매행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태국 나나삼판노 스님이 쓰는

## 중생이 우주라지만

19

### 부처님의 자유 ①

우 리 시대가 무량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자유이다.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자유를 부르짖는 소리가 넓게 또 깊박하게 울렸던 적은 일찍이 없었을 것이며, 인간의 존재 기반 깊숙이까지 그 소리가 파고 든 적도 결코 없었을 것이다. 이처럼 자유를 찾아 몸부림친 결과 정치, 사회, 문화, 종교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광범위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민 각자가 소속 집단의 향방에 대해 발언권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군주제나 과두제와 같은 낡은 정치 형태는 '국민에 의한 정치'를 표방하는 민주주의에게 길을 비켜 주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종교마저도 이렇게 확산되어가는 해방 전선에서 성역을 고집할 수 없게 되었다. 신앙 체계와 행위 규범은 이전처럼, 신이 명했다거나 경전이 성화시켰거나 성직자가 규정했다는 근거만으로는 더 이상 정당화되지 않는다. 이제 신앙 체계와 행위 규범도 신성의 배일을 정어부치고, 자신의 이성과 경험을 최종적 판단 기준으로 삼는 현대 지성인들의 비판적인 공격을 받아낼 준비를 해야만 한다. 이처럼 자유의 영역을 더욱 더 넓히고 싶어 하는 인류의 요청에 응답이라도 하듯 부처님은 이 세상에 그의 가르침인 법을 퍼 2천5백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자유의 길을 열어주고 있다. "큰 바다에 맛이란 오직 한 가지 소금맛이

## 불법 본질은 인간해방

법과 계율 자유의 향기로 충만  
수행비례 닦은 만큼 자유 누려

있듯, 이 법(dharma)과 율(vinaya)에는 오직 한 맛, 자유의 맛이 있을 뿐이다." 부처님은 이 한마디로 불법이 인간 해방을 본질로 하고 있음을 단언했다.

대양의 물은 표면에서 떠서 맛보거나 중간에서 떠서 맛보거나 바닥에서 떠서 맛보거나 그 물맛은 매양 똑 같으니 짠 맛일 뿐이다. 또 바닷물을 한모금 마시거나 한잔을 마시거나 한 통을 다 마시거나 그 맛은 언제나 똑같이 짠 맛일 뿐이다.

이 점 부처님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이다. 부처님의 모든 법과 계율은 단 한 가지 향기, 자유의 향기로 충만해 있다. 비교적 기초 단계에서 법을 맛보거나, 다시 말해서 관공과 도덕적 수련을 닦는 중에, 기도와 수행을 실천하는 중에 법을 맛보거나, 또는 중간 수준에서 맛보거나, 즉 선정을 통해 고요와 통찰을 이루는 단계에서 맛보거나, 아니면 가장 깊은 수준, 즉 해탈을 이룬 수행자가 실현하는 초세간적 지경(知境)과 해탈에서 맛보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법의 맛은 똑같으니 바로 자유의 맛이다.

가령 어떤 사람이 올바른 도리에 어긋나지 않는 재가 생활을 하여 법을 한정된 범위에서 닦으면 그 사람은 한정된 자유를 그 대가로 경험하게 될 것이다. 만일 그 사람이 출가하여 한갓지게 살면서 속세를 떠난 사람다운 덕행을 짓고, 일체 조건지워진 것들의 생(生)과 멸(滅)을 관하는 등, 보다 충실히 법을 닦으면 자유도 보다 충실히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수행자가 법을 최종 단계까지 닦아 이 생에서 해탈의 목표를 성취해내면 수행자는 한량 없는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 그 어떤 수준에서도 가르침의 향기는 단 한 가지 성질뿐이니 자유의 향기다. 다른 점이라면 어느 정도에 이 향기를 누리는가 하는 그 차이뿐이며 이 차이는 그 사람의 수행 정도에 정확하게 비례한다. 조금 법을 닦으면 조금 자유를 얻고, 많이 법을 닦으면 많이 자유를 얻는다. 법은 언제나 과학적 법칙처럼 정확하게 자유라는 독특한 보상을 베푼다.

오종욱 기자 (gobaou@buddhapiam.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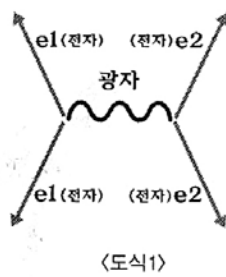
## 과학산책

### 통일장 이론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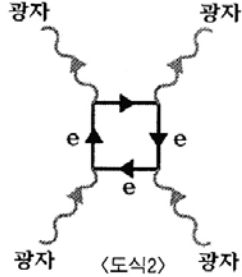
‘통일장 이론’이란 근본적인 수준에서 표현적인 차이를 분별하는게 아닌 개별적인 차이를 통합적인 것으로 보는 데서 출발한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입자와 힘이 다르다고 느낀다. 그러나 양자장 이론에서는 오직 장(場)만이 있을 뿐 입자와 힘의 차이는 기능상의 문제이다. 즉, 입자와 힘 모두 같은 장의 다른 표현이라는 것이다. 좀더 자세히 살펴 보자.

양자장에는 세가지 뚜렷히 다른 모드가 있다. 첫째는 우리가 입자로 인식하게되는 장의 상태로 '안정적 장 상태'이다. 이 상태에서의 장의 에너지는 잘 정의되고 이산적인 에너지를 가졌으므로 입자라고 자연스럽게 인식된다. 양자장 이론에서는 이산적인 높이를 가진 파만이 안정된 파이다. 이는 어떤 장(場)의 에너지량이 이산적이거나 양자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양자장 이론에서는 이산적인 값을 가지지 않은 파들은 모두 불안정하며 불안정하기 때문에 관측되지 않

는다. 양자장이 이산적 단위의 에너지를 전달하게 되면 우리는 입자들의 존재를 인식하게 된다. 한 단위의 에너지 단위를 가지고 있는 장의 상태를 한 입자 상태라고 하고 장이 두 단위의 에너지를 가지면 두 입자 상태라고 이른다. 장의 입자 상태는 안정되어 있으며 다른 입자를 만나



<도식1>



<도식2>

의 존재를 감지하고 도식의 위 방향으로 서로에서 멀어진다. 실험으로 관측되는 것은 전자 e1, e2이다.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양자장은 입자나 혹은 힘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역할은 전자장(電子場)을 중간 매개로 일어나는 두 광자(빛 양광)의 산란을 나타내는 도식(2)에서는 반대가 된다. 여기에서는 가상 전자가 힘의 역할을 하고 광자가 측정되어지는 입자의 역할을 한다. 전통적으로 두 개의 빛 입자 혹은 두 번재 상태인 과도기적 장 상태이다. 실험으로 검출되지 않기 때문에 가상 입자라고 부르며 실제로는 힘의 역할을 한다. 전자 e1과 e2는 도식 및 부분으로부터 올라와 가상 광자를 매개로 서로

은 순전히 양자역학적 예언이다. 이와 같이 파이만 도식에 루프(loop)가 있으면 이는 항상 고정적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새로운 양자역학적 효과가 있음을 알려 준다. 이런 효과는 항상 프랑크 산수를 포함하게 되는데 거시적 안목에서 보면 이는 매우 작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상적 조건에서는 빛에 의한 빛 산란은 관측되지 않는다.

양자장 이론은 그래서 전에에 관계되지 않았던 입자와 힘이라는 개념이 자연스럽게 하나의 이론적 구조안에서 통합되는, 간단하며 심오한 자연에 관한 관점을 제공한다. 즉 입자와 힘은 단순히 드러나지 않는 양자장의 다른 활동 모드에 해당된다.

조원희(본사 전략정보실장)

## 체탈도첩 및 제적공고

하기 승려는 본종 중현종법 상벌법 제3장 제8조 3항 및 6항에 의거 체탈도첩 및 제적을 공고함.

- 문수사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동 496-16 기우근 (法一, 智山)
- 중생사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2동 200-11 허명선 (정담)
- 약수암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본동 208-8 허덕현 (보경)
- 도선암 전라남도 여수시 광무동 1038 이재모 (금해)
- 옥여사 전라남도 화순군 이양면 오우리 121-1 윤태수 (원각)
- 관음사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3동 553-82 김발자 (보화)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45 세종아파트 642동 802호 송창호 (도일)

불기 2543년 10월 16일

재단법인 한국불교법륜중추무원장 석효성

오로지 불법포교에 전 생을 바친 **성운대사 수상록**

## 쉽지 않은 만남

불교가 나를 의지할 결심을 해야지,  
내가 불교를 의지할 생각을 해서는 안된다.

대만 최대의 사찰인 불광산사를 건립하고 전 세계에 150여 개의 말사를 운영하며 인간불교의 이상을 실현하고 있는 성운스님이, 살아오면서 겪었던 자신의 일상과 불법포교의 과정, 그리고 그 속에서의 교훈과 삶의 지침 등을 자전적으로 쓰고 있다. 당당하면서도 겸손하고, 대범하면서도 세심하게 수많은 관계들을 풀어나가는 스님의 삶의 철학을 통해 많은 지혜를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이인옥 편역/신국판/229쪽/값 6,500원

은주사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1가 51번지 타운힐빌딩 ☎전화 : 3672-7181~5 팩스 : 3672-7186

## 사주추명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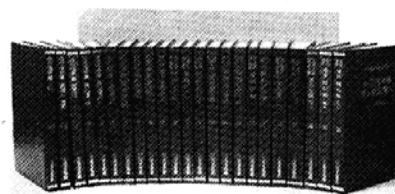
아부태산 전집 23권

운명학의 금자탑  
아부태산 전집 드디어 번역 출간되다!!

우리말로 쉽게 풀이하여 누구나 읽고 이해할 수 있다.  
운명을 알 때 재난과 불행은 있을 수 없다.

나는 새 흐르는 물 말없는 바위와도  
대화할 수 있는 지혜 행복의 샘이 여기에 있다

- 사주추명학 12권
- 사주추명학 육임신과 7권
- 사주추명학 적천수한해 3권
- 사주추명학 천문자미운명학 1권



※날권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권당 15,000원, 전집은 330,000원  
삼원문화사 문의전화 TEL. (02)333-4005, 323-3493  
FAX. (02)323-3494